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prolonged upon the land which Jehovah thy God giveth thee.* (출20:12)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공경(恭敬)’이란 공손히 받들어 모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계명으로,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사실은 유대교, 기독교가 다르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기타 등등이 또 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많이 다른

건 아니고, 두세 계명의 내용과 순서가 좀 다른데, 네, 하여튼 복잡합니다.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따로 구글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스베덴보리는 ‘아케이나 코엘레스티아(Arcana Coelestia, 天界秘義)’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에서 오늘 본문을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베덴보리 말이, 이 주석은 주님이 그 어떤 천사도 통하지 않으시고 직접 곁에서 풀어 주셨고, 자기는 그걸 받아적기만 했다고. 오직 성경만 한 권 참고했을 뿐 세상 그 어떤 책도 레퍼런스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순서를 따르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저도 얼핏 보면, 겉뜻으로는 다섯 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 속뜻을 알고 나면 네 번째가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때,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여기 넣을지 저기 넣을지 하는데서 오는 고민입니다.

참고로, 위 스베덴보리가 참고했다는 성경은 스베덴보리가 히브리 성경을 속뜻으로 직접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스베덴보리는 기존 히브리 성경을 천사들이 읽는 성경으로 새로 번역, 사용했으며, 그래서 위

출20:12, AC.8896-8900

‘네 부모를 공경하라’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에 나오는 모든 인용 구절들 역시 자기가 번역한 이 새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속뜻으로 번역했다 하여 무슨 완전히 다른 새 번역이 아니라 ‘속뜻이 반영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은 겉뜻만으로도 무척 공감되는 계명입니다. 바울도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엡6:1-3)

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히브리 성경을 따르면서 단순히 겉뜻으로 읽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의 겉뜻은 너무나 자명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계명의 속뜻은 무엇일까?

둘째, 우리의 지상 혈연관계가 사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

셋째, 우리를 지상에서 부모-자식으로, 핏줄로 만나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상을 통해 오늘 본문을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 주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속뜻을 보면, 오늘 본문의 속뜻은 아케이나 코엘레스티아 출애굽기 20장 12절 주석에 나오며, 글 번호는 8896번에서 8900번까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선과 진리를 사랑함을,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왕국 사랑함을.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그 결과, 천국에서 살게 되는 삶의 상태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은 신성이 있는 곳 및 그 결과, 신성의 유입을 각각 말합니다.

천국에서 공경함은 사랑함입니다. 사랑 없는 공경은 천국에서는 거부되는데요, 사랑은 생명인데, 이 천국 생명이 없으면 잠시라도 있을 수가, 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서 ‘아버지’는 선을, 그리고 신적 선 측면에서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바라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지한다’는 건 음식이나 옷을 대어 주며 모든 일을 돌보아 주는 걸 말합니다. 천국에서 ‘어머니’는 진리를, 그리고 신적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신적 진리가 천국을 이루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선과 진리를 사랑함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왕국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내용은 8897번 글입니다.

십계명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천국 천사들을 위해서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의 겉뜻을, 천사들은 그 속뜻을 취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말씀 아케이나가 그렇듯,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도 가급적 속뜻을 취하여 지상에서도 천국을 살며, 말씀을 통해 주님과 결합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아직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성경의 여러 기적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케이나로 받아들여 적용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기적이란 천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요, 말씀을 아케이나, 곧 속뜻으로 읽고 적용, 실천하면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유심히 관찰 중입니다.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 여러 정황들이 쌓여 가는 중인데요, 아주 확실해지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또한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에서 ‘길리라’는 선의 증가를 말합니다. 천국에서 길이는 선을, 넓이는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천국은 이곳 자연계처럼 시공간의 나라가 아닌, 상태와 그 변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길어진다’는 건 천국에서는 선이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네 생명이’는 영어 ‘*thy days*’, 즉 ‘네 날들’을 옮긴 것으로, 천국에서는 ‘날’은 생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땅’은 여기서는 가나안을 말하며, 그러므로 천국 주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표현은 주님의 왕국인 천국 삶의 상태, 곧 선이 영원히 증가하는 삶을 말하며, 관련 내용은 8898번 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에서

출20:12, AC.8896-8900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천국에 충만한 신성(神性, *the Divine*)을, ‘준’은 인플럭스(*influx*, 入流)를 말합니다. 인플럭스는 주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피조세계에 흘러드는, 피조세계를 주님과 연결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과 연결되는 걸 ‘준다’고 한 것이며, 그렇게 천국에 충만한 주님의 신성과 연결되는 걸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8899번 글입니다.

이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속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선과 진리를 사랑하며, 주님과 주님의 왕국인 천국을 사랑하면 영원히 주님의 신성과 연결되어 그 삶이 천국에서 영원하며, 더욱더 선이 증가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확실히 우리가 아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뉘앙스와는 정말 많이 다르지요?

겉뜻과 속뜻의 문제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나 내용이나, 즉 자연계나 영계의 문제요, 세상이나 천국이나의 문제입니다. 내면이 어디까지 열렸나 하는 문제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자기 역량의 문제요, 그릇의 크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걸로 만족할래 하면 네, 좋습니다. 그만큼의 천국, 그러나 본인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니까 역시 충만한 천국이 되는 것이요, 나는 더욱 주님과 천국을 추구할래 하면 역시 네, 좋습니다. 그만큼 더 높은 천국, 더 깊은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며, 주님은 무한해서서 얼마든지 이 사람을 채우실 수 있으므로 이 사람 역시 충만할 것입니다. 이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후자는 해처럼 불타는 주님 사랑의 빛 가운데 산다면, 전자는 까마득히 아스라한 별빛 정도의 주님 사랑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원하는 만큼만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이상으로 넉넉히 늘 채워주시므로 천국의 중심이든 변두리든 어디서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거듭 천국은 상태의 나라임을 기억하세요. 상태, 곧 주님 사랑의 상태로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내 잔의 크기가 곧 나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지상 혈연관계가 사후에도 계속 이

어지는 건가?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굳이 미리 안 알려줘도 나중에 사후 다 알게 될 걸 왜 미리 알려주어 피차 서로 좀 어색하게 하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굳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초롱초롱 오직 더욱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개개인의 인권, 인권,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요즘은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혹은 '내 남편', '내 아내', 더 나아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식구' 등 소위 '내 것', '내게 속한 것'에 너도 나도 다 정신 못 차리고 빨려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가족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양쪽 둘 다 극단이어서 모두 위험하며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

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10:37)

보통 부모, 자식은 선과 진리를 가리키지만 여기서처럼 주님과 대비가 되는 상황에선 정반대, 곧 악과 거짓, 그로 인한 자아, 본성, 자기 사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제 핏줄 사랑, 혈육 사랑도 주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주님 사랑을 대적하는 자아, 자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핏줄 사랑, 혈육 사랑은 반드시 주님 사랑의 다른 한 형태에 불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내 핏줄도 주님을 거쳐서, 통해서 사랑해야지 주님을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사랑하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사단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앞에서 참조한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에 나오는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모든 핏줄 사랑은 핏줄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상황을, 내 핏줄을 온전히 천진난만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과 속, 곧 겉 사람과 속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의 구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육을 벗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영도 겉과 속, 겉 사람 속 사람이 있어, 영의 겉 사람은 생전에 육과 영을 연결하던 일을, 영의 속 사람은 영이 육 안에 있을 동안, 선이든 악이든 진리 또는 거짓과 하나가 된 겉 말합니다. 진리를 실천하여 선과 하나 된 경우도, 거짓을 실천하여 악과 하나 된 경우도 다 영의 속 사람, 곧 그 사람 자신이 됩니다. 천국도 지옥도 다 이 영의 속 사람, 곧 그 사람의 정체, 진짜 모습으로 갑니다.

우리는 보통 사후 눈 뜨면 바로 천국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다 세상 살 동안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순도 100% 선인 또는 악인으로 있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래서 사후 바로 천국 또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일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 또는 지옥은 순도 100%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아주 아주 희귀하게 지상에서 이미 순도 100%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 거의 직행하다시피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 이미 선 또는 악으로 충분히 잘 익은 사람들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래서 사후 이 천국 또는 지옥 갈 준비를 하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에선 쓸데없는 악을,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에선 쓸데없는 선을 떼어내어 순도 100%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 일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은 사후, 즉 육의 몸을 벗으면 영의 몸, 즉 영체를 입은 영이 되는데, 사람이 사후 영계에서 깨어날 때 주님께 의해 이 사람은 천국, 저 사람은 지옥이 결정됩니다. 주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천국 갈 영들은 선한 영으로, 지옥 갈 영들은 악한 영으로 각자 방금 말씀드린 준비에 들어가는데. 선한 영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면 천국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지만 지옥 갈 악한 영들은 준비 완료되면 바로 지옥으로 뛰어듭니다. 그들은 무슨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기도 하고,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 순도 100%의 상태가 되면 세상에서 경험하고 습득한 모든 기억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며,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천국 갈 사람이면 영광스런 모습으로, 지옥 갈 사람이면 아주 흉측한 괴물이 됩니다. 자기들 끼리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말입니

다. 이때는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못 알아보며, 또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던 모습과 기억은 영의 걸 사람 모습인데, 이 모든 걸의 것이 다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속 사람의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광의 새 모습이 나와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피차 서로 더 이상 못 알아보입니다. 또 천국은 무수한 선의 종류로 나누어지는 무수한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세상에서 서로 핏줄로 지냈어도 이 선의 종류가 다르면 서로 다른 공동체로 배정, 더 이상 함께 지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선이 같으며, 사후에도 함께 있길 원할 경우,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애벌레를 거쳐 누에고치의 삶을 살다 때가 되어 고치를 뚫고 나와 황홀하리만치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순도 100%가 되어 천국 어느 공동체에 배정되는 것을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러니 그전 애벌레의 삶에서 알던 가족들을 어떻게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데 말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공동체로 배정받아도 그러나 여기서도 천국, 저기도 천

국이요, 이 사람도 천사, 저 사람도 천사입니다. 아, 참고로 천국에 사는 사람을 천사라 합니다. 주님은 천사 따로, 사람 따로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직 사람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겉뜻으로만 읽어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참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태고교회, 주님이 사람들을 찾아 오실 때 주님은 사람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감히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상, 사후에도 영의 걸 사람으로 지내는 상태를 지나 영의 속 사람으로 지내는 상태로 등 상태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살짝 지상의 일로 다시 한번 비유하자면, 남자가 군대 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바로 신병 훈련소입니다. 이십여 년을 완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던 청년을 갑자기 총과 수류탄을 다루며, 철저한 상명하복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자대로 실전 배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수습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겠지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병 훈련소에 입소, 군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기본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간인으로 살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습득한 모든 사제 찌든 물을 싹 다 빼버리는 것이지요. 이걸 확실히 뺀 사람은 군 생활이 쉽지만, 어설피게 뺀 사람은 정말 군 생활이 힘듭니다. 네, 이런 겁니다. 군인 되기 위해 먼저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야 하듯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도 먼저 이런 준비 상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영계는 시공간이 아닌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상 혈연관계가 사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 하는 걸 살펴봤고, 그 답은 ‘아니오’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지상에서 부모-자식으로, 핏줄로 만나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를 살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 자명하며, 앞에서도 살짝 먼저 좀 다루었습니다.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살 동안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닌,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 우리 영의 속 사람이 잘 준비되어 사후 아무 문제 없이 천국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모판입니다. 모판

(모板)이란 뱀씨를 뿌려 모를 키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판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천국 천사들의 기쁨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이 일을 위한 주님의 길고 긴 거듭나게 하시는 기간입니다. 거듭남이란 생고구마 같던 인간, 혼돈과 공허, 흑암 상태였던 인간에게 빛을 비추사 자기를 사랑하던, 세상을 사랑하던 인간으로 하여금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의 영의 속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삶에 합당케 하시는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우며,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신적 자비가 함께하시는 기간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핏줄이고 혈육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 곁에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진리를 성령이라 하듯, 또 어떤 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계신 부모님은 사실은 내 곁에 부모님 모습으로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내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잘난 부모와 달리 못나고 가난하며, 흠결이 많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부모로서 잘못 산 책임은 부모의 몫일 뿐입니다. 부모의 죄에 간섭하거나 상관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못한 부모 밑에서 그러나 반듯하게 자라며, 주께 하듯 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자녀는 오늘 약속하신 저런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 북한 사람들, 저들이 하필이면 저 북한에 태어난 게 저들의 죄가 아니듯 지금 이런 분들이 내 부모님인 것 또한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그런 모든 걸 받아들여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쓴다면 오히려 부잣집에 태어났어도 참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보다,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보다 백 배, 천 배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 및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조부

모를 비롯 모든 핏줄, 혈연 등으로 다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란 ‘주님이 제게 베푸신 일에 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 무슨 섭리 있으셔서 가장 좋은 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선과 진리에만 힘쓰는 사람은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며, 아버지의 환대를 받아 새 옷과 손의가락지, 그리고 밭에 신을 신고, 송아지를 잡는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아 출애굽기 십일조 본문 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2)

를 가지고 그 걸 뜻과 속 뜻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지금 당신의 핏줄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라며, 주께 하듯 핏줄을 사랑하여 오늘 본문의 속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